

여대생의 체형 인식도와 만족도 차이 연구

The Comparative Study on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f Somatotype of University Woman Students

동부산대학 패션디자인과
겸임교수 조윤주

Dept. of Fashion Design, Dong-Pusan College
Full-time Lecturer : Youn-Joo Cho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론 및 논의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결과 및 고찰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e actual somatotype and perceptual somatotype, and to compare actual somatotype with ideal somatotype, and to explore segmentation based on perception of slim/obese somatotype.

The respondents included 201 female student volunteers, aged 19 to 27, who were enrolled at university in Busan. Data were analyzed by paired t-test, correlation analysis, cluster analysis, and ANOV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subjects tended to be satisfied with long and slim, slim limbs, and preferred to be tall in height and light in weight. And perceptual somatotype was related to satisfaction of somatotype. Cluster analysis was female college students to identify groups of respondents based on the perception of somatotype(all the body, the upper half of the body, the lower half of the body)difference factors. Based on the finding, three distinct groups were formed: slim tendency group, moderators tendency group, obese tendency group. There were a significant among slim tendency group, moderators tendency group, and obese tendency group base on the perceptual somatotyp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three groups in terms of perception of somatotype and satisfaction of somatotype.

주제어(Key Words): 체형인식(perception of somatotype), 이상적 체형(ideal somatotype), 실제체형(real somatotype), 체형만족(satisfaction of somatotype)

Corresponding Author: Youn-Joo Cho, Dept. of Fashion Design, Dong-Pusan College, #640 Bansong-dong, Haeundae-ku, Busan, Korea
Tel: 82-51-581-7718 Fax: 82-51-540-3844 E-mail: ju222@netian.com

I. 서론

의복 착용자가 의복을 통해 얻는 심리적 만족도는 신체 만족도와 관련되어 형성된다고 할 수 있으며 신체적 만족도는 체형과 관련되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정재은, 1993). 특히 20대의 젊은 여성일수록 외모에 관심이 높아 자신의 신체나 의복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남윤자, 이승희, 2001).

그러나 실증연구에서 자신의 정확한 체형적 영향을 가진 사람은 소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최유미, 손희순, 1997; Kefgen & Touchie-Specht, 1976), 대부분의 여성들은 표준치에 비하여 키는 약간 크고, 체중은 약간 적으나 비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백희영, 남윤자, 박재경, 김주연, 2000). 실제로 젊은 여성인 여대생의 경우에는 마른형을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나친 감량식사를 함으로써 영양섭취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백희영 외 3인, 2000).

이와 같이 여대생들은 자신의 외모와 체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허갑범, 1990), 비만에 대하여 지나친 두려움으로 갖고 있어서 자신의 체중이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표준체중에 이미 도달하였거나, 정상적인 기준과 비교하여 저체중인 경우에도 자신의 체중에 대하여 과장체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 체중과 이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식체중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였다(Modes, Banilvy & Lishitz, 1989).

20대 여성의 경우 가늘고 긴 체형을 이상적인 체형으로 인식하여 30대 이상의 주부에 비해 가늘고 긴 체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만족도는 낮게 나타나(구양숙·추태귀, 1996; 박우미, 1993)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 젊은 층일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며 자신의 신체나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다(박우미, 2000).

그러나 신체 만족도와 체형 및 의복행동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여 신체의 종합적인 만족도, 선호를 취급하고 있을 뿐 신체 각 부위의 만족도나

선호에 관해서는 자세한 고찰을 하지 않고 있어 체형의 각 부위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정재은, 이순원, 1993; 최유미 외 1인, 1997).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여대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체형과 만족도를 조사하며, 실제 체형의 치수와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체형의 치수를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자신의 체형을 인식하는 인식체형이 실제체형보다 신체 만족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구양숙 외 1인, 1996; 김용숙, 1990; 박우미, 1993; 정옥임, 1993; Lennon, 1988), 정재은 외 1인(1993)의 제안에 따라 여대생 자신의 수척/비만정도의 인식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이들의 세분집단들이 인식하고 있는 각 부위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항목

부산지역의 대학에 다니고 있는 19세에서 27세에 해당하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임의표본추출법으로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2002년 5월에서 7월 사이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수거하는 방법과 설문지에 응답한 응답자를 실제 계측하는 방법을 병행하였다. 총 260부를 배포하여 212부를 수거하였으며 응답상태가 불성실하거나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11부를 제외하고 통계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201부이다.

설문지는 자신의 체형에 관한 인식 및 만족도는 임경복(1997)의 연구, 백희영 외 3인(2000)의 연구, 심정희(2003)의 연구와 최유미 외 1인(1997)의 연구에서 사용한 항목들을 종합하여 목둘레,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어깨너비, 위팔둘레, 아래팔둘레, 팔길이, 넓적다리둘레(무릎위), 장딴지둘레(무릎아래), 다리길이, 키, 몸무게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자신의 체형에 대해서 수척/비만에 대한 인식도는 정재은 외 1인(1993)에서 사용한 전신, 상반

신, 하반신에 대해 말랐는지 뚱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측정하였고, 신체의 실제 치수와 이상적 치수는 키, 몸무게,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등 5가지 측정항목을 사용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체형의 측정 자료와 설문자료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의 과정을 거쳐 SPSSWIN 10.0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를 하였다. 먼저, 여대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체형과 만족도의 차이 분석과 실제 치수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치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쌍체비교(paired t-test)하였고, 체형의 인식과 만족도와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실제 여대생의 실제 체형에 대한 계측치수를 기준으로 세분집단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하였으며 이 세분집단별로 체형 인식과 체형 만족도의 차이분석을 위해 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체형 인식도와 만족도의 차이

여대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체형과 그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표 1>과 같이 쌍체비교(paired t-test)를 하였다. 체형의 각 부위의 크기에 대한 항목에서는 '작다, 가늘다, 짧다' 라는 크기가 작다는 인식을 갖는 경우에 5점척도 중 1점을 부여하고, 반대로 '크다, 굵다, 길다' 라는 크기가 크다는 인식을 갖는 경우에 5점척도 중 5점을 부여하였다. 만족도에 대해서는 매우 불만족하는 경우에 5점척도 중 1점을 부여하고 매우 만족하는 경우에는 5점척도 중 5점을 부여하였다.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을 보면, 상반신이나 하반신의 둘레에 대해서는 거의 평균이상으로 굵거나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지 목둘레, 가슴둘레, 어깨너비, 아래팔둘레는 평균 이하

를 보이고 있다. 가슴둘레는 작고 어깨너비는 좁아 모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단지 아래팔둘레는 평균 이하로 굵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리길이와 키 역시 평균 이하인 2.44를 보이고 있어 키도 작고 다리길어도 짧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체형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목둘레를 제외하고는 모두 평균이하를 보이고 있어 여대생들은 자신의 체형에 대하여 거의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형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목둘레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신의 체형에 대해 인식도 보다는 만족도가 거의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자신의 체형에 대하여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더라도 매우 불만족을 느끼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가슴둘레는 작은 것으로 인식하여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허리둘레는 비교적 평균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나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엉덩이둘레는 비교적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깨너비는 좁아서, 위팔둘레는 굵어서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체형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의 차이분석

구 분	인식도	만족도	t값
목둘레(작다-크다)	2.85	2.58	1.097
가슴둘레(작다-크다)	2.45	1.81	3.647**
허리둘레(가늘다-굵다)	3.08	1.76	6.070**
엉덩이둘레(작다-크다)	3.52	1.73	8.438**
어깨너비(좁다-넓다)	2.73	2.16	2.108*
위팔둘레(가늘다-굵다)	3.32	1.85	6.066**
아래팔둘레(가늘다-굵다)	2.82	1.85	4.706**
팔길이(짧다-길다)	3.10	2.05	6.124**
넓적다리(무릎위)둘레(가늘다-굵다)	3.97	1.81	8.795**
장만지(무릎아래)둘레(가늘다-굵다)	3.39	1.94	5.895**
다리길이(짧다-길다)	2.44	1.74	4.677**
키(작다-크다)	2.44	1.95	3.146**
몸무게(가볍다-무겁다)	3.03	2.06	3.995**

*p<.05, **p<.01

아래팔둘레는 비교적 작다고 인식하면서도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팔길이 역시 길다고 인식하면서도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넓적다리둘레와 장딴지둘레는 굵어서 불만족하고 있으며, 다리 길이와 키는 모두 짧거나 작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몸무게는 평균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 역시 만족여부에서는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실제 체형 치수와 이상적인 체형 치수

여대생의 실제적인 체형의 치수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체형 치수를 <표 2>와 같이 쌍체비교(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응답자의 평균 키는 160.93cm이나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키는 166.76cm로 평균적으로 약 5.8cm가 더 커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몸무게의 평균은 51.07kg이나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몸무게는 49.14kg로 평균적으로 약 1.9kg정도를 빼야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허리둘레의 평균은 66.29cm이나 이상적인 허리둘레는 64.41cm로 평균적으로 약 1.9cm를 빼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엉덩이둘레의 평균은 90.99cm로 이상적인 엉덩이둘레와는 약 2.3cm정도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이상적인 체형이 되기 위해서는 키는 더 커야하며, 몸무게는 더 줄여야 하고, 가슴둘레는 더 커야하며,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는 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표 2> 실제 치수와 이상적인 치수의 만족도 차이분석

구 분	실제치수	이상치수	t값
키(cm)	160.93	166.76	-20.882**
몸무게(kg)	51.07	49.14	6.116**
가슴둘레(cm)	82.76	85.07	-4.210**
허리둘레(cm)	66.29	64.41	5.249**
엉덩이둘레(cm)	90.99	88.68	5.275**

*p<.05, **p<.01

3. 체형의 인식과 만족도와의 상관관계

체형의 인식과 체형의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기 위하여 각 항목들에 관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체형의 각 부위에 대한 인식과 체형 만족도간에는 아래팔둘레와 몸무게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슴둘레, 팔길이, 다리길이, 키를 제외하고는 모두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레항목에서는 가슴둘레를 제외하고는 목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위팔둘레, 아래팔둘레, 넓적다리둘레, 장딴지둘레 등 모두 -0.219~-0.758까지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이들의 부위가 작거나 가늘수록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슴둘레는 다른 부위와는 달리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가슴은 클수록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유미 외 1인(1997)의 연구에서는 가슴둘레가 작을수록 만족한다는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아마도 <표 2>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가슴둘레에서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작기 때문일 것이다.

체형의 길이항목에서의 인식과 체형 만족도의 상관관계수들은 어깨너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표 3> 체형의 인식과 체형의 만족도간의 상관계수

구 분	상관계수
목둘레(작다-크다)	-0.758**
가슴둘레(작다-크다)	0.255*
허리둘레(가늘다-굵다)	-0.326**
엉덩이둘레(작다-크다)	-0.361**
어깨너비(좁다-넓다)	-0.530**
위팔둘레(가늘다-굵다)	-0.403**
아래팔둘레(가늘다-굵다)	-0.219
팔길이(짧다-길다)	0.310*
넓적다리(무릎위)둘레(가늘다-굵다)	0.569**
장딴지(무릎아래)둘레(가늘다-굵다)	-0.413**
다리길이(짧다-길다)	0.483**
키(작다-크다)	0.547**
몸무게(가볍다-무겁다)	-0.158

*p<.05, **p<.01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의 상관관계는 크고 긴 것에 만족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체형의 길이에 대한 부위에서는 길고 큰 것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팔길이, 다리길이 그리고 키의 항목에서는 0.310~0.547까지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이들의 부위가 길거나 클수록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깨너비에서는 -0.530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좁을수록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군집분석에 따른 체형의 분류

응답자의 실제 체형에 대한 계측치수(키, 몸무게,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를 기준으로 워드법(ward's method)을 이용한 계층적 군집분석과 quick cluster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군집분석한 결과 최종 3개의 세분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각 집단의 체형의 특성을 파악하여 집단명을 정하기 위하여 세분집단과 전신, 상반신, 하반신에 대한 인식도(①매우 말랐다에서 ⑤매우 뚱뚱하다)간의 차이검증을 위한 분산분석과 사후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였다.

군집 1은 전신이나 상반신과 하반신에 대하여 평균 이하로 나타나 '마른체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전신이나 상반신과 하반신에서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어 '표준체형 집단'으로 명명하였고, 군집 3은 전신이나 상반신과 하반신에서 모두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 '비만체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분석 결과는 Wilks' Lambda, Hotelling-Lawley

Trace, Roy's Greatest Root 등 군집분석결과의 유의성 검증기준을 통해 볼 때, 유의수준 .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illai's Trace 분석결과의 경우도 군집분석이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리과정임을 나타냈다.

5. 체형 인식 및 만족도와 세분집단별 차이분석

1) 체형 인식과 세분집단별 차이분석

세분집단 간의 체형 인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15개 항목에 대한 세분집단간의 차이분석 결과 <표 5>와 같이 팔길이, 넓적다리둘레, 장딴지둘레를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둘레,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위팔둘레, 아래팔둘레, 넓적다리둘레, 장딴지둘레 등 각 체형 부위의 둘레항목에서 비만체형 집단이 가장 크거나 굵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른체형 집단이 가장 작거나 가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깨너비에서는 비만체형 집단이 가장 넓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장 좁다고 인식하는 집단은 표준체형 집단으로 나타났다.

체형의 길이항목인 팔길이, 다리길이, 키 등은 표준체형 집단이 가장 길거나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른체형 집단이 가장 짧거나 작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군집분석에 의한 세분집단과 수척/비만의 인식도 간의 분산분석

구 분	군집 1(n=36) (마른체형 집단)	군집 2(n=102) (표준체형 집단)	군집 3(n=63) (비만체형 집단)	F값
전 신	2.52*(L)	3.18(M)	4.27(H)	16.531**
상반신	2.52(LM)	3.14(M)	4.36(H)	14.318**
하반신	3.17(LM)	3.18(M)	4.36(H)	7.845**
Wilks' Lambda(6.885), p<.000,		Pillai's Trace(6.660), p<.000		
Hotelling-Lawley Trace(7.102), p<.000,		Roy's Greatest Root(11.666), p<.000		

* ① 매우 말랐다 -⑤ 매우 뚱뚱하다는 리커트 5점척도의 평균값, **p<.01

〈표 5〉 체형 인식과 세분집단간의 차이분석

구 분	군집 1 (마른체형집단)	군집 2 (표준체형집단)	군집 3 (비만체형집단)	F값
목둘레(작다-크다)	2.48(LM)	3.00(MH)	3.55(H)	5.741**
가슴둘레(작다-크다)	2.03(L)	2.32(L)	3.82(H)	9.656**
허리둘레(가늘다-굵다)	2.48(L)	3.23(M)	4.36(H)	16.533**
엉덩이둘레(작다-크다)	3.31(L)	3.36(L)	4.36(H)	4.319*
어깨너비(좁다-넓다)	2.69(L)	2.27(L)	3.73(H)	4.078*
위팔둘레(가늘다-굵다)	2.90(L)	3.18(L)	4.73(H)	11.206**
아래팔둘레(가늘다-굵다)	2.41(LM)	3.05(MH)	3.45(H)	4.192*
팔길이(짧다-길다)	2.72(M)	3.55(M)	3.18(M)	2.770
넓적다리(무릎위)둘레(가늘다-굵다)	3.97(MH)	3.64(LM)	4.64(H)	2.498
장딴지(무릎아래)둘레(가늘다-굵다)	3.48(M)	3.05(M)	3.82(M)	1.413
다리길이(짧다-길다)	1.90(LM)	3.09(H)	2.55(MH)	6.539**
키(작다-크다)	1.66(L)	3.27(H)	2.82(MH)	12.103**
몸무게(가볍다-무겁다)	2.55(LM)	2.96(M)	4.45(H)	12.103**

*p<.05, **p<.01, ()안은 사후검증결과

2) 체형 만족도와 세분집단별 차이분석

세분집단 간의 체형 만족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15개 항목에 대한 세분집단간의 차이분석 결과 <표 6>과 같이 목둘레, 넓적다리둘레, 다리길이, 키, 그리고 몸무게 항목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둘레에 대해서는 마른체형 집단만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체형 집단과 비만체형 집단은 모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넓적다리둘레에서는 세 집단 모두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만체형 집단이 가장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체형 집단이 덜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리길이와 키에 대해서도 세 집단 모두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마른체형 집단이 다리길이나 키에

〈표 6〉 체형 만족도와 세분집단간의 차이분석

구 분	군집 1 (마른체형집단)	군집 2 (표준체형집단)	군집 3 (비만체형집단)	F값
목둘레(작다-크다)	2.93(H)	2.45(MH)	1.91(LM)	3.952*
가슴둘레(작다-크다)	1.93(L)	1.86(L)	1.36(L)	1.682
허리둘레(가늘다-굵다)	2.03(H)	1.59(MH)	1.36(LM)	2.636
엉덩이둘레(작다-크다)	1.72(L)	1.91(L)	1.36(L)	1.337
어깨너비(좁다-넓다)	2.17(L)	2.36(L)	1.73(L)	1.708
위팔둘레(가늘다-굵다)	1.86(MH)	2.09(H)	1.36(LM)	2.052
아래팔둘레(가늘다-굵다)	2.28(L)	2.18(L)	1.91(L)	0.566
팔길이(짧다-길다)	1.97(L)	2.23(L)	1.91(L)	0.570
넓적다리(무릎위)둘레(가늘다-굵다)	1.66(MH)	2.23(H)	1.36(LM)	4.219*
장딴지(무릎아래)둘레(가늘다-굵다)	1.83(L)	2.18(L)	1.73(L)	1.141
다리길이(짧다-길다)	1.38(L)	2.05(H)	2.09(H)	4.350*
키(작다-크다)	1.41(L)	2.50(H)	2.27(H)	8.701**
몸무게(가볍다-무겁다)	2.41(H)	2.00(MH)	1.27(LM)	3.823*

*p<.05, **p<.01, ()안은 사후검증결과

대해서 가장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리길이에 대해서는 비만체형 집단이 덜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키에 대해서는 표준체형 집단이 덜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몸무게에 대해서도 세 집단 모두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만체형 집단이 가장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여대생들이 자신의 체형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실제 체형을 기준으로 하여 세분집단으로 구분하여 체형의 각 부위별로 인식과 만족도와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조사하였다.

먼저,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허리와 엉덩이, 넓적다리, 장딴지는 굵고 다리길이와 키는 작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체형에 대한 인식은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 정재원 외 1인(1993)의 연구와 중년 여성의 체형에 대하여 연구한 심정희(2003)의 연구와 유사결과를 도출하였다. 심정희(2003)의 연구에서 중년 여성이 인식하는 자신의 체형보다는 들레항목에서는 더 작거나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길이항목에서는 더 짧거나 작지 않다고 나타났으나 체형의 인식은 거의 유사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체형에 대한 만족도는 전 부위별로 평균 30이하로 나타나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의 차이분석에서는 모듈레를 제외하고는 전 부위에서 인식이 높은 점수를 보이고 만족도가 낮은 점수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적인 체형의 치수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체형 치수의 비교에서도 실제적인 체형의 치수는 1997년도 국민표준체위조사보고서에 의한 키 159.3cm, 몸무게 49.7kg, 가슴둘레 81.5cm, 허리둘레 65.5cm, 엉덩이둘레 89.3cm와 비교하면 키는 약간 크고 체중은 거의 비슷하다. 또한 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는 국민표준체위조사보고서 자료보다 각각 1.3cm,

17cm정도가 크며, 허리둘레는 0.2cm 더 작게 나타났다. 신체지수의 평균값은 모두 정상범위에 속하였으나 만족여부는 모두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젊은 여성들은 마른형의 날씬한 체형을 이상형으로 추구한다는 연구(백희영 외 3인, 2000)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체형의 인식과 체형의 만족도와의 상관관계의 결과를 보면 키가 크고 몸무게는 가볍고 팔·다리가 길어 체형이 마른형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슴둘레는 최유미 외 1인(1997)의 연구결과와 다르게 클수록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재원 외 1인(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실제 체형에 대한 계측치수를 기준으로 하여 세 개의 세분집단으로 구분하여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과 차이 분석한 결과, 마른체형 집단에서 비만체형 집단 순으로 들레항목에서는 굵거나 크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팔길이, 다리길이, 키는 표준체형 집단이 길거나 크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마른체형 집단이 가장 짧거나 작다고 인식하고 있어 마른체형 집단과 비만체형 집단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리둘레와 관련된 항목에서는 세 집단 모두 평균이상으로 굵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표준체형 집단과 비만체형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상반신보다는 하반신에 대해 마른 것을 더욱 원한다는 것(정재원 외 1인, 1993)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체형 만족도와 세분집단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세 개의 세분집단 모두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슴둘레는 세 집단 모두에서 가장 큰 불만족 부위 중의 하나이다. 세 집단간의 차이를 보면, 마른체형 집단은 길이 항목에서 다른 두 집단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몸무게에서는 비만체형 집단이 다른 두 집단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른 체형 집단은 다리길이에 가장 큰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다음이 키, 넓적다리둘레 순이다. 마른체형 집단은 길이항목에 대해 더 큰 불만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반하여 비만체형 집단에서는 가장 큰 불만족은 몸무게이며 그 다음이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위팔둘

레, 넓적다리둘레이며 어깨너비와 장판지둘레 순이다. 이는 다리길이나 키와 같이 길이항목보다는 둘레항목에 더 큰 불만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준체형 집단은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몸무게 순으로 불만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마른체형 집단이나 비만체형 집단보다는 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보면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인식체형과 실제체형에는 많이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여대생들이 자신의 체형이 표준체형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비만이라고 잘못인식하고 있어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대생이 자신의 체형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홍보 및 방안이 필요하며, 또한 체형특성 및 각 개인의 체형인식 등을 고려하여 신체적·심리적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실용적 원형개발 및 디자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해석하는데 다음과 같은 주의점이 필요하다.

첫째, 표본이 부산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일반화하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둘째, 체형인식에 따른 세분화와 더불어 실제적으로 계수를 통한 체형의 세분화도 필요하나 자신의 체형을 인식하는 인식체형이 실제체형보다 신체 만족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구양숙 외 1인 1996; 박우미, 1993; 정옥임, 1993; Lennon, 1988)에 더 중점을 두어 세분집단에 대한 해석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 참고문헌

- 구양숙, 추태귀(1996).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의복관여도에 관한 연구. *대안가정학회지*, 34(5), 29-39.
- 김용숙(1990). 전북지역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만족도와 유행지향성에 관한 연구. *대안가정학회지*, 28(4), 177-189.
- 남윤자, 이승희(2001). 한·미 여대생의 실제체형과 인지체형의 만족도에 관한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5(4), 764-772.
- 박우미(1993). 우리나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의식구조. *대안가정학회지*, 31(1), 163-180.
- 박우미(2000). 신체에 대한 의식과 만족도에 대한 한국과 미국여대생의 비교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5), 736-747.
- 백희영, 남윤자, 박재경, 김주연(2000). 신체에 대한 의식과 계측자료에 의한 여대생들의 체형비교연구. *대안가정학회지*, 38(3), 59-70.
- 심정희(2003). 중년 여성의 체형에 대한 자기 평가. *한국의류학회지*, 27(1), 18-28.
- 임경복(1997). 신체만족도에 따른 의복행동에 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5(2), 195-205.
- 정옥임(1993). 개인적 인식에 의한 인지체형과 실제체형과의 비교연구. *대안가정학회지*, 31(1), 153-162.
- 정재은, 이순원(1993). 20대 여성의 실제 체형과 이상형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3), 448-458.
- 최유미, 손희순(1997). 중년기 여성의 실제체형과 신체인식에 관한 연구. *복식*, 31, 119-130.
- 한국표준과학연구원(1997). 산업제품의 표준치 설정을 위한 국민표준체위 조사보고서. 국립기술품질원.
- 허갑범(1990). 영양과 관련된 질환의 현황과 대책. *한국영양학회지*, 23(3), 197-207.
- Kefgen, M. and Touchie-Specht, P. (1976).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 2nd ed., N.Y.: Macmillan Publishing Co.
- Lennon, S. J. (1988). Physical Attractiveness, Age and Body Typ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6(3), 196-203.
- Moses, M., Banilvy, M. M., and Lishitz (1989). Fear of obesity among adolescent girls. *Pediatrics*, 83(3), 393.

(2003년 7월 30일 접수, 2003년 10월 7일 채택)